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8. 9. 13.(목) 조간	배포	2018. 9. 12.(수)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김재경 부국장(3145-8130), 윤지연 선임조사역(3145-8124)		

제 목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청년 구직자」 대상 맞춤형 피해예방 활동 전개

- 한국청년회의소 및 취업카페와 공동 캠페인 진행 -

1 실시 배경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고수익 일자리라며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속인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악용
 - 청년구직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
- 이에따라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 '18.9월~11월(3개월) 기간중 한국청년회의소*, 유명포털의 4개 취업카페** (스펙업, 취업대학교, 취업뽀개기, 취뽀플러스)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가두캠페인 실시 등 공동 캠페인을 집중 전개키로 하였음

* 설립일 : '74.4.9., 중앙회장 : 김가람, 회원수 : 2만여명

** 회원수 : 스펙업 180만명, 취업대학교 70만명, 취업뽀개기 140만명, 취뽀플러스 17만명

보이스피싱 전달책 악용 사례

■ 비트코인 고액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취준생 올리는 사기...거래소 알바라고 생각, 사기혐의로 검찰송치"

- 취준생 A씨는 온라인 취업카페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알바 모집광고를 보게 됨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코인거래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지시를 하였고, A씨는 아무 의심없이 현금 전달업무를 수행함

알고보니 코인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심부름꾼로 전략하여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됨

2 공동 캠페인 내용

1 청년회의소의 가두캠페인 등 실시 : '18.9~11월(3개월)

- (캠페인 진행) '18.9.13.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총 59회* (46개 사무국) 가두캠페인 또는 홍보부스 운영 예정
 - * 서울(3)·경기(7)·강원(1)·경북(11)·경남(11)·충남(6)·충북(5)·전북(8)·전남(5)·제주(2)
- 젊은층 밀집 지역, 대학가 인근 등에서 보이스포싱 범죄연루 피해 사례, 범죄가담시 처벌수위 등을 담은 리플렛과 기념품 배포
- (카드뉴스, 웹툰 제작·홍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카드뉴스 및 웹툰을 제작, 금감원 및 청년회의소 홈페이지, 블로그,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청년회의소 발간지(JCI Magazine)에 게시

2 취업카페·대학교 취업포털을 통한 홍보 : '18.9~11월(1~3개월)

- 유명포털 대표 4개 취업카페에 '18.9.13.부터 보이스포싱 범죄연루 주의문구를 담은 배너홍보 실시
 - 카페 전체공지를 통해 취업 관련 보이스포싱 범죄연루 피해 사례, 범죄시 처벌 수위 등을 카드뉴스, 웹툰 등을 통해 소개
- 한편, 감독원은 전국 대학교(약 374개) 취업포털 게시판에 카드뉴스, 웹툰 등을 게시토록 협조공문 발송

3 유의사항

-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직 광고의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보이스포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경찰청 112, 금감원 1332)하시기 바람

* ① 자격증, 경력이 없어도 고수익 보장 ②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메신저로 업무지시 ③ 거래대금 인출, 현금 전달 업무 지시 등

<붙임> 리플렛, 웹툰 각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